

“예배 보러 간다 VS 예배 드리러 간다”

2024 지구촌예배학교

잠/자/는/예/배/를/깨/우/라

예배는 보는 것일까요, 드리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화나 연극처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교류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교류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당신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한 번 상상해봅시다. 어느 날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 당신을 그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꽤나 지위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당신보다 더 높은,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이 초대했다고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가꾸진 정원을 지나 으리으리한 그의 집에 발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독대하며 마주 앉아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때 당신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처음 초대장을 받았을 때 당신은 깜짝 놀라 두렵기도 했겠지만, 결국 그 만남이 너무 기대되지 않았을까요? 그의 초대에 감사해서 작지만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고, 그의 이야기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경청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기분 좋은 설렘과 떨림이 공존하지 않았을까요?

예배는 이처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을 받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제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그저 관람하고 관망하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이며, 예배를 본다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Worship은 worth(가치)와 ship(신분)의 합성어로,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신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Worship(예배)**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최대한의 존경으로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나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드리는 예배에 이렇게 생동하는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 일수도 있습니다. 지구촌교회는 이 놀라운 만남의 현장인 예배가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 위해 <지구촌 예배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잠자는 예배자를 깨우라 ②기대감 ③드림 ④반응 ⑤경외감/친밀감 ⑥영과 진리 ⑦순종 이라는 8가지의 키워드를 7주간에 걸쳐 깊이 묵상하고 훈련하며 건강한 예배자로의 변화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런 건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하늘의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지 2024 지구촌 예배학교를 통해 당신의 예배가 회복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 지구촌예배학교

일시 : 3/7(목)-4/25(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수지채플 306호

등록비 : 10,000원(교재비포함)

커리큘럼

- 1) 잠자는 예배자를 깨우라 / OT
- 2) 기대감
- 3) 드림
- 4) 반응
- 5) 경외감/친밀감
- 6) 영과 진리
- 7) 순종(종강/수료식)

등록방법 : QR코드를 통한 신청서 제출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대시면 신청링크로 이동합니다.

문의 : 예배부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된다.”

-A.W.토저-

“예배는 만남에 관한 것, 곧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일이다.”

-잭 헤이포드-

“위대한 영적 법칙 중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툼 라이트-